

장진기 / 김은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소식

P.O.Box 0332, Kampong Cham, Cambodia
E-mail: changjinkee@gmail.com / keksk21@gmail.com

Tel: 855-97-807-1720(장진기) / 855-10-301-602(김은경)
070-7569-9088(인터넷전화)

2018년 9월 20일
33 번째 선교편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항상 가정과 사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모든 선교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교사는 학생의 단점보다 가능성에 집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지의 6년차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 선교지에서의 사역과 삶에 대하여 다시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역이 건강한 교사로서 현지의 그들을 섬기고 삶을 나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첫툼의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 매일 무릎을 꿇습니다. 가정의 사역과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간의 소식을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전합니다.

☞ 교회사역: 구입한 대지정리 & 교회소식

지난 6월소식에서 사역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팀 사역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 방향에 있어 “선교지 중복투자”란 상황을 놓고,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결론을 다시금 재확인하면서 구입했던 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마음 편히 예배드릴 장소’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소원하는 교회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하며, 교회가 진정한 교회될 수 있도록,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현지 학교가 8월 말부터 2달간의 방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도 알차고 의미 있는 사역을 위해 “방학맞이 3주완성 (신약)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대다수가 학생들이라 보니, 이동의 편의를 위해 마을 내 성도 가정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읽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계획한 후 기도하던 중, 지인되는 선교사님을 통해 신약성경 1박스 (80권)를 기증받았습니다. 부족한 성경으로 인해 통독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던 중이었는데, 이미 다 아시고 채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풍성한 열매로 보답하는 사역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 뽀르다라 FC: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시작된 축구팀이 구성된 것도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따금 축구를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의 나태함이 꾸준한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회활동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되어감에 감사합니다.

성경공부시간,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할 경우에는 성경 추가 (한장)읽기를 페널티로 적용 했는데,

최근 들어 페널티가 아닌 자원하는 성경 읽기로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 씩이지만 변해가는 그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 “지역교회 연합 축구대회”가 9월 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회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15세 이하 1팀이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축구대회의 본연의 목적인 “복음-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학교설립사역 & NGO설립사역

학교 설립을 준비하기 전, 먼저 정리되어야 할 행정 처리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 관련 행정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정종찬 선교사님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가정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지 않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 매주 함께 모여 그간의 소식을 나누며, ‘팀 사역’과 ‘현재 맡고 있는 사역’, 그리고 ‘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부탁 드립니다.

총선이 끝나고 다시금 NGO 설립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진행중입니다. 다만,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고 정부차원에서 NGO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함께 설립을 추진하는 선교사님들도 지친 모습입니다. 아시아시피 NGO 설립의 목적이 단순히 NGO 설립만이 아닌 캄보디아에서의 삶과도 직결되는 VISA문제가 있기에 동참하는 모두의 기도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학교지원사역 & 한국어 방과후교실

지대가 낮고 하수도시설이 열악한 현지의 사정상 우기철에는 아직도 학교의 이곳 저곳이 빗물로 가득합니다. 1년전부터 학교장과 함께 논의하면서 틈틈이 외부에서 흙을 구입하여 지대를 높이는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열린문교회(전태현 목사)와 송광교회(안병각 목사)의 헌금, 상주서문교회(조성래 목사) 단기팀의 특별헌금을 통해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해주신 교회들과 단기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지학교를 지원하면서 항상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운동장 다운 운동장이 없는 것입니다.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를 구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8월 말부터 현지학교는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학의 시기와 함께 한국어교실도 방학을 합니다. 아쉬움을 토로하며 계속 수업하자는 학생들이 있어 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역이 되길 소원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학생들에게 알찬 방학을 선물해줄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무엇보다 그 시간들을 통해 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시간되길 기도합니다.



👁️ 가정의 소식: 지민이 건강소식 & Homeschooling & 건강을 위해

지민이의 정기검진과 재활치료가 10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약 2달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검진에서는 지난 4월 검진시 진행되었던 희귀질환 검사결과와 추가 재활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나아가 장기 재활에 대한 부분까지도 논의할 수 있어 가정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정과 여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어느덧 지아와 지훈이의 Homeschooling 과정도 중반부에 다 다왔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야 할텐데 남은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열심으로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8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 식사준비를 위해 근처로 (차량)이동하던 중, 컨테이너 차량운전자의 전방 시야확보 부주의로 인해 잇따라 주변의 차량들과 충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차량 모두가 크게 파손되고 운전자 모두 추돌에 의한 큰 충격이 있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 간단한 신분확인 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몇 일 지나고 나니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어 최근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사역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 기도제목

[교회사역] 주님을 만나고 이웃을 섬기는 말씀과 교제가 풍성한 교회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며,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의 초점이 주님만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경읽기(신약)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이 더욱 주님을 알기 소원합니다.

[학교설립사역] 매주 모이는 기도모임을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두 가정되게 하시며 하나되는 팀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어교실] 현지학교 방학과 함께 언어교실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2기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어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될 3기 한국어수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지민이의 건강과 언어, 행동발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정되게 하옵소서.